

[10월 1주차] 산업AI 주간동향 보고

<26.10.1. 한국산업지능화협회>

구분	26/10/1주 산업AI 동향
산업AI 관련 국내 정책 동향	· <u>「함께 크는 MAX 프로젝트」로 미래차 생태계 구축 가속화</u> - 산업부, 양산 경험 부족으로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소·팹리스 기업의 병목을 대기업 검증 인프라와 연결하는 '성장형 상생협력' 모델을 MAX 얼라이언스 정책으로 제도화 -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, 자율주행·로보택시 상용화, AI 경쟁력 핵심 자산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3대 과제로 설정 · <u>부울경 대표 성장엔진, '첨단조선' 본격 가동</u> - 산업부, 철의장 제조공정에 AI 전환(MAX)과 3D 디지털트윈을 접목하는 디지털트윈센터를 울산에 개소, 8월 발표한 권역별 성장엔진(부울경 첨단조선·해운) 후속조치 신호탄 - 조선 기자재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통해 K-조선 경쟁력의 다음 단계 도약을 겨냥
글로벌 산업AI 동향	· <u>미중 정상, AI 비상 핫라인 구축 합의...규제 대신 '위기 관리'에 초점</u> - 미중 정상회담, AI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 소통채널 신설과 '초지능(SI)' 명칭 통일, 11월 APEC 계기 정례 대화 개최에 합의 - 미국은 기술 격차 유지 의지를 명확히 한 반면 중국은 상호 협력을 강조, 근본적 통제 장치보다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틀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 · <u>AI 발전 속도 못 따라가는 각국 규제...정책과 기술 격차 사상 최대'</u> - NYT, 기술 발전과 제도화 간 간극이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진단, 규제 강화 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각국 판단을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- 인도·일본·호주 등은 완화된 관망 기조를, 브라질은 포괄적 규제 논의를 택하는 등 각국이 저마다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대응하며 국제 공조 없는 규제 지형이 형성되는 중

- 1) 「함께 크는 MAX 프로젝트」로 미래차 생태계 구축 가속화. 26.9.30. 산업통상부 보도자료
- 2) 부울경 대표 성장엔진, '첨단조선' 본격 가동. 26.9.30. 산업통상부 보도자료
- 3) 미중 정상, AI 비상 핫라인 구축 합의...규제 대신 '위기 관리'에 초점. 26.9.27. AI타임즈
- 4) AI 발전 속도 못 따라가는 각국 규제...정책과 기술 격차 사상 최대'. 26.9.29. 세계일보